

민간·공동체 아카이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술정보 공유 방향 연구*

A Study on Sharing Descriptive Information for Establishing Private and Community Archive Network

현 문 수 (Moonsoo Hyun)**

목 차

- | | |
|--------------------------|--------------------------------|
| 1. 서론 | 3. 아카이브 네트워크 사례 분석 |
| 1.1 연구의 목적 | 3.1 기관 목록 연계형 네트워크 |
|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3.2 통합 목록 구축형 네트워크 |
| 1.3 선행연구 | 3.3 분석 종합 |
| 2. 국내 민간 아카이브의 기술 대상과 현황 | 4. 공유 및 통합 이용을 위한 방향 |
| 2.1 특정 유형의 기록 | 4.1 민간 아카이브 디렉토리 구축과
협업체 구성 |
| 2.2 특정 개인을 매개로 한 공동체 기록 | 4.2 기술정보 공유 모형 |
| 2.3 특정 가치·사건 공동체 기록 | 5. 결론 및 제언 |
| 2.4 특정 주제 기록 | |

<초 록>

일상 아카이브와 공동체 아카이브에 대한 관심이 소규모 민간 아카이브 설립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들 민간 아카이브의 소재를 확인하고 자원을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만들 수 있다면 다양한 현재상을 남길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국내 소규모 민간 아카이브의 컬렉션 기술정보를 공유하고 통합 이용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기술정보 공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국내 수집형 민간 아카이브의 소장물 기술 현황을 파악하고, 해외 아카이브 네트워크와 게이트웨이에서의 기술요소 공유사례를 분석하여 향후 국내 민간·공동체 아카이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필요한 기술요소 공유 체계 마련에 바탕을 제공할 목적 하에 연구를 진행하였다.

주제어: 민간 아카이브, 공동체 아카이브, 아카이브 네트워크, 기록 메타데이터, 기술정보 공유, 상호운용성

<ABSTRACT>

Growing interest in everyday-life archives and community archives leads to the establishment of small-scale archives in the private sector. Interoperability of descriptive information is necessary to be able to have a link between these factor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how descriptive information can be interoperable in private archives, which participate in the archives network, and to suggest a direction in organizing the private and community archives network. For this purpose, it investigated the current situation of archival description in small-scale private archives in Korea, especially in terms of collection, and analyzed descriptive information applied to four foreign archives networks. Based on the analysis, it gives some suggestions for sharing descriptive information in Private and Community Archive Network (PCAN) in Korea.

Keywords: private archive, community archive, archive network, archival metadata, sharing descriptive information, interoperability

* 본 연구는 2013년 11월 2일 한국기록관리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 부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전임연구원(moonsoo925@gmail.com)

■ 접수일: 2013년 11월 20일 ■ 최초심사일: 2013년 11월 27일 ■ 게재확정일: 2013년 12월 23일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3(3), 127-150, 2013. <<http://dx.doi.org/10.14404/JKSARM.2013.13.3.127>>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기록과 아카이브를 통해 사회를 기록화하고 집단 및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늘고 있는 요즘, 다양한 민간 및 공동체 아카이브가 소장하고 있는 기록정보자원의 공유와 통합 이용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제기되고 있다. 국가와 개인의 중간 지점에 존재하는 다양한 가치·경험 공동체 등의 아카이브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이영남 2012), 시민의 '일상 기록 지도'를 만들고 이를 서로 연계하는 기록공동체 운동 및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곽건홍 2011)하는 등 국내에서도 그 요구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민간 아카이브는 “민간이 설치·운영하는 아카이브”로, “기업 보존 기록관, 대학 보존 기록관, 종교 단체 보존 기록관, 병원·정당·노동조합·스포츠 단체 등의 사회단체 보존 기록관”은 물론이고, “동성애자 보존 기록관, 나병 보존 기록관 등과 같이 특수한 집단의 기록을 보존”하는 조직, 시설 장소로(한국기록학회 2008. 120), “특정 공동체가 그 역사와 정체성에 대한 이해를 압축해 담은 자료의 집합”을 보존하는 공동체 아카이브(community access to archive project 2004)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 정의에 따르면, 민간 아카이브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뉠 수 있다. 첫 번째는 민간 형태의 모기관에서 생산하거나 접수하여 장기보존 가치를 인정받은 보존기록을 관리하는 형태의 단독 기관형 민간 아카이브이며, 두 번째는 지역이나 경험 공동체를 포함하여 공통의 가치나 경험을

공유하는 민간 집단의 기록을 수집하거나 생산하여 관리하는 공동체기록 수집형 민간 아카이브이다. 사회의 가치 다양성이 확대되고 일상의 기록화라는 측면이 강조되면서 다양한 공동체 기록 수집형 민간 아카이브가 설립되고 있으며, 이는 점점 더 가속될 것으로 보인다.

설문원(2012)은 로컬리티 기록화를 위해 주체는 물론이고 기록을 생산·관리하는 다양한 집단, 공동체의 기록이 독립적이면서도 다각적으로 모일 수 있는 구조를 제시하면서 활용을 위한 이들 사이의 협력을 강조한 바 있다. 소규모 민간 아카이브의 설립은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가는 주체로서의 일상민이나 가치 및 경험 공동체의 과거와 현재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일상 및 로컬리티 기록화 방식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이들 민간 아카이브가 수집하고 보존하는 기록정보자원의 소재를 확인하여 공유 및 통합 이용을 촉진하는 일은 현재를 다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하며 사회통합과 같은 역할에까지 확대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최재희 2008)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 할 수 있겠다.

이미 국외에서는 특정 지역이나 주제, 공동체, 국가 간 다양한 아카이브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상호 기술정보(descriptive information)를 공유하고 통합 이용하기 위한 틀을 마련하고 있다. 여기에는 국가 및 범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투입되기도 하고, 공동체의 자체적인 참여가 기초가 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아카이브와 도서관, 박물관 등 사회의 기억과 문화를 보존하는 '문화유산기관' 사이의 정보자원 공유에 관심이 늘고 있다. 그런데 이 분야의 연구는 각각 성격을 달리하는 문화유산기관이 서로 다

른 기술 및 메타데이터 표준을 적용하여 구축한 기술정보를 어떻게 서로 매핑하고 통합해줄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춘다. 각각의 기관은 기록과 문헌, 유물이라는 구분되는 대상을 관리하고 있으나, 이들을 모두 인류의 문화적 경험이 표현된 자원이라는 개념으로 통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비해 그간 우리나라의 아카이브, 그 중에서도 여러 민간 아카이브가 소장하고 있는 기록정보자원을 공유하고 통합하기 위한 기술(description)적 측면에서의 시도는 매우 미미하다. 다양한 유형의 기록정보자원을 기술하기 위한 메타데이터나 기술요소의 필요성을 언급한 김주관(2008)도 민속 디지털 아카이브의 구축에 있어 선행조건 중 하나로 여러 유형을 아우를 수 있는 표준 메타데이터의 개발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는 특정 유형의 기록을 기술하기 위한 요소나 표준 데이터모델을 제시하고 있으며, 통합검색 방안을 제시하는(백지원 2013) 등 그 대상이 제한적이고 여러 민간 아카이브가 관리하는 기록정보자원의 공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어렵다.

이에 이 연구는 국내 소규모 민간 아카이브가 소장하고 있는 컬렉션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통합 이용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 기술정보 공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즉, 국내 공동체기록 수집형 민간 아카이브의 소장물 기술 현황을 파악하고, 해외 아카이브 네트워크와 게이트웨이에서의 기술요소 공유사례를 분석하여 향후 국내 민간·공동체 아카이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필요한 기술요소 공유 체계 마련에 바탕을 제공할 목적 하에 연구를 진행하였다.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이 연구에서는 기술(description)의 측면에서 향후 국내 소규모 민간 아카이브가 소장하는 기록정보자원 공유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민간 아카이브는 그에 대한 정의를 바탕으로 모기관이나 조직이 생산한 기록을 이관 받는 단독 이관형 민간 아카이브와 하나 이상의 특정 그룹이 생산하거나 그에 대한 기록을 함께 보존하는 공동체기록 수집형 민간 아카이브로 크게 구분될 수 있었다. 전자의 경우는 그 기록 생산기관이 민간 기관이며 이를 관리하고 보존하기 위한 조직 또한 민간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모기관의 규정과 업무를 바탕으로 하여 구축되는 분류기준표나 처리일정표 등을 포함하는 기록관리 프로그램의 체계 내에서 기록을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이며(김상호 2001; 김선미 2004; 김익한 2011; 김화경 2007; 박성수 2010; 이은미, 김명, 임진희 2012), 따라서 기록 기술 역시 현용 관리에서부터 축적된 정보를 최대한 반영하는, 기관 특화적인 측면이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 대상을 후자로 한정하였다. 현대 우리나라의 사회상을 다양하게 남기고 공유하여, 다양한 그룹이 서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미래 세대 역시 이를 통해 현대를 다각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려면 흩어져 있는 여러 공동체기록 수집형 민간 아카이브의 소재 확인과 그 소장 기록정보자원의 공유가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우선, 우리나라의 소규모 민간 아카이브를 대상으로 이들이 관리하는 기록정보자원의 유형과 기술 현황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아직 국내에는 민간 아카이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디렉토리나 같은 도구가 존재하지 않아 (설문원 2013; 임진희 2013), 문헌연구 및 별도의 검색과정을 거쳐 관리 대상과 기술 현황을 확인하였다. 문헌 연구에서는 문화자원을 포함하여 민간 아카이브를 대상으로 진행된 정책 연구에서부터 구체적인 메타데이터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국내 연구를 살펴, 연구자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민간 아카이브에서의 관리 대상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국내 기관 검색은 네이버와 다음 및 구글 포털 검색을 이용하였는데 '기록관', '자료관', '사료관', '아카이브'를 표방하는 온·오프라인 상의 민간 기관이나 조직 이면서 기록학 용어사전 상의 '기록'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 민간 및 공동체 기록이나 정보 자원을 관리하고 정리·기술하여 일반 대중에게 서비스하고 있는 곳을 1차로 선정하였다. 이들 중, 정부재정이 직접적으로 투입되는가, 개별 종교단체나 종교인 기록만을 다루는가, 신문사 등 모기관의 기록 중 일부를 소개하기 위한 공간인가, 개인이 자신이 생산한 기록과 자료를 축적하기 위해 운영하는 개인 블로그의 성격을 지니는가, 행사 안내와 홍보의 성격이 두드러지는가 등의 기준에 해당하는 대상을 제외하였다. 분석 대상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었는데, 1) 특정 유형의 기록, 2) 특정 개인을 매개로 한 공동체 기록, 3) 특정 가치나 사건 공동체 기록, 4) 특정 주제 분야의 기록을 수집하고 관리·서비스하는 민간 아카이브의 유형에 따라 사례 기관을 분석하였다.

두 번째로, 국외 아카이브 네트워크의 사례를 통해 기록정보자원의 공유 및 컬렉션 안내를 위한 기술정보 활용 현황을 분석하였다. 주

요 분석 대상은 여러 연구에서 대표 민간 아카이브 게이트웨이 사례로 꼽고 있는 캐나다의 MemoryBC를 포함하여, 영국의 스코틀랜드 지역 내 아카이브 소장물을 안내하는 Scottish Archive Network, Cambridgeshire의 공동체 아카이브 소장물을 안내하는 Cambridgeshire Community Archive Network(CCAN), 유럽 사회사 기록 포털인 Social History Portal 등이며, 각 기관의 홈페이지와 규정, 보고서 등을 통해 참여 기관간 기술정보 공유 유형은 물론 컬렉션 기술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세 번째, 국내 민간 아카이브 사례에서 드러난 국내 현황과 문제점, 해외 사례 분석에 따른 시사점을 바탕으로 여러 소규모 민간 아카이브의 소장물 기술정보 공유와 통합 이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기술정보 공유 모형과 및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모색하였다.

마지막으로, 미래 국가 차원의 소규모 민간·공동체 아카이브 네트워크(private & community archive network: PCAN) 구축을 목표로 고려할 사항과 그 방향을 기록정보자원에 대한 기술정보 공유의 측면에서 제안하였다.

1.3 선행연구

앞선 연구의 범위에 맞추어 공동체기록 수집형 민간 아카이브의 관리 대상인 민간 기록의 기술(description)과 관련하여 진행된 연구를 살펴본 결과, 국내 연구는 주로 유형별 기록에 적용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나 기술요소를 도출하기 위한 연구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김수정과 김용(2013)의 연구, 위주영(2010)의 연구와 같이 무형문화유산을 대상으

로 한 메타데이터 연구가 있다. 김수정과 김용은 무형문화유산 기록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검색 및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FRBR 모형을 기반으로 한 메타데이터 요소를 개발하였으며, 기록물을 대상으로 저작, 표현형, 구현형, 개별 자료의 4개 수준으로 제안하였다. 위주영은 문화유산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메타데이터 표준화 현황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메타데이터를 무형문화유산에 적용하기 힘들다는 결론 하에 공예기술과 관련된 문화유산에 적용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 도출을 시도하였다. 그런데 김수정과 김용의 경우 하나의 대상이 다양한 형태로 재현될 수 있는 무형문화유산의 특징만을 강조하여 다른 기록정보자원에게도 일반적으로 확대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위주영 역시 공예기술과 기능보유자, 공예품, 사진으로 그 유형을 한정하여 메타데이터 모형을 제시하는 한계가 있었다.

유형의 문화유산이나 특정 주제 분야 기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는 장윤미와 정연경(2010), 황진현과 임진희(2012), 김진성(2011), 이정연 외(2011), 윤택림과 최정은(2012) 등의 연구가 있다. 장윤미와 정연경은 캐나다와 영국의 기록물 기술표준과 건축도면 기술 지침 및 건축기록 관리 지침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건축도면 기록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요소를 제안하였다. 황진현과 임진희는 시각예술기록정보를 대상으로 객체, 행위주체, 업무, 규정 등 『KS X ISO 23081』의 다중 엔티티 개념을 적용한 데이터 모델을 설계한 바 있으며, 김진성은 다양한 국제 기록물 기술 규칙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영화 기록을 작품과 개별 자료로 구분하고 그 내용과 맥락, 구조를 반영하면서도 영화 기록의 특성을

반영하여 각각 22개 25개 요소로 구성된 일반 기술요소(안)를 설계하였다. 이정연 외는 여성 구술생애기록물의 맥락을 드러내는 방안에 집중하면서 메타데이터 개념을 구조화하는 시도를 진행하였다. 윤택림과 최정은은 자연과학 분야의 연구기록과 질적 연구 프로젝트에서 생산되는 자료의 기술의 차이를 밝히고 ISAD(G)를 기본으로 연구 프로젝트 생산기록이라는 맥락을 강조할 수 있는 문화기술지적 기록의 계층별 기술요소를 제안한 바 있다.

점점 많은 이용자들이 개별 기관 수준이 아니라 네트워크 수준에서 정보를 탐색하고자 하는 요구를 드러내고 있음에도(Schaffner 2009), 기관 간 기술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일부 연구들도 민간 아카이브 네트워크보다는 도서관과 아카이브, 박물관 사이의 목록 통합과 연계에 집중하고 있다. Elings와 Waibel(2007)은 이 세 영역에서 서로 다른 메타데이터 및 기술 표준을 발전시켜왔으나, 소장 자원 유형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디지털 환경에서는 기관이 아니라 자원의 유형별로 적절한 메타데이터 표준과 기술 표준을 채택하고 서로 공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Lim과 Liew(2011), Cronin(2008), Prescott와 Erway(2011) 역시 도서관, 아카이브, 박물관 사이의 메타데이터 공유와 통합 활용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일부 연구는 기술 메타데이터 표준과 다른 표준과의 매핑을 실험해보기도 했는데, Prom(2002)은 EAD 메타데이터의 상호운영성을 사례 실험한 바 있으며, Bountouri와 Gergatsoulis(2011)은 EAD와 CIDOC CRM 온톨로지를 실험적으로 매핑하는 연구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각각의 연구는 민간 아카이브간 기술정보의

공유 필요성만을 논하거나 특정 유형 및 주제 분야 기록을 다각도로 기술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었으나, 민간 아카이브 네트워크 구축시 필요한 기술정보의 공유 방향을 도출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도서관, 아카이브, 박물관 사이의 협력에 필요한 메타데이터나 기술요소 공유만을 강조하고 있을 뿐 민간 아카이브 사이의 기술정보 공유와 통합 이용을 위한 방안이나 조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2. 국내 민간 아카이브의 기술 대상과 현황

민간 기록은 '비정부 기관의 출처로부터 비롯된 기록'이라는 정의(한국기록학회 2008. 111)에 비추어 볼 때 민간 아카이브에서 기술(description)하는 대상은 전통적으로 기록의 범주이면서, 공공 아카이브의 관리 대상을 제외한 것이라 정의할 수 있겠다. 여기에는 문서형 기록은 물론 사진이나 구술기록을 포함하여 다양한 유형의 자료와 유·무형의 문화유산(CAAP 2004)이 속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예술작품이나 수명이 짧은 리플릿, 포스터, 기념 배지 등도 포함된다(Flinn & Stevens 2009). 정리하면 민간 아카이브의 기술 대상은 기록의 범주, 즉 특정 지역이나 집단의 역사, 현재상, 정체성, 의사소통방식 등을 증거할 수 있고 재현할 수 있으면서 민간 기관이나 조직, 개인을 출처로 하는 유·무형의 객체로 범주화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국내 소규모 공동체기록 수집형 아카이브에서의 기술대상과 기술현황을 살펴보

았다. 특정 유형·개인·집단이나 사건·주제 기록을 대상으로 하는 아카이브로 구분하여 각 범주에 해당하는 사례 아카이브를 분석하였다.

2.1 특정 유형의 기록: 소리아카이브

기록의 유형을 특정하여 수집하고 보존·서비스하는 아카이브 사례로 다음세대재단이 운영하는 '소리아카이브'를 살펴보았다. 다음세대재단은 재휴단체나 기관과 협약을 맺어 오디오 콘텐츠를 수집하는데, 정기 및 부정기적 강좌, 특정 주제별 대담과 인터뷰는 물론, 일반인이 제작한 오디오 UCC, 역사로 기록될만한 현대의 정치연설, 기자회견, 집회연설 등을 수집해 보존하고 서비스하고 있다. 5개 라디오 파트너, 다음세대재단을 포함하여 현재 총 22개 파트너 기관과 제휴하여 소리를 남기고 있으며, "사람들과 소통하고 세상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소리 전문 아카이브를 구축해나갈" 목표를 밝히고 있다(<http://soriarchive.net/>).

소리아카이브는 오디오 콘텐츠를 보존하는 공간이자 서비스를 위한 플랫폼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뿐 이에 대한 실 저작권은 전적으로 파트너 기관에게 있다. 소리아카이브와 제휴·협력한 개인, 기관, 단체, 즉 파트너가 인증 과정을 거쳐 오디오 콘텐츠를 건 단위로 직접 등록하고 삭제한다. 파트너는 소리아카이브가 설정한 주제별 범주나 파트너별 범주를 선택하여 콘텐츠 건을 등록하는데, 이때 기술하는 기본 항목은 '제목', 오디오 콘텐츠의 '녹취일자'와 '장소', '한줄설명', '나레이터', '출처', '홈페이지', '주요 내용 설명', '저작권자', '분류', '태그' 등이다. 한편, 주요 내용 설명란을 이용해 일부 오디오

오 콘텐츠에 대해서는 주제, 소제목, 제작자, 제작년도, 녹음인, 파일명, 총 파일 개수, 홈페이지, 상세내용, 참고자료 등이 별도로 기입되기도 하고, 오디오 콘텐츠의 녹취록을 보여주기도 하는 등 파트너별, 오디오 콘텐츠별 상이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었다.

2.2 특정 개인을 매개로 한 공동체 기록: 서태지 아카이브

특정한 개인을 매개체로 모인 집단의 기록을 수집하고 보존·서비스하는 아카이브로는 '서태지 아카이브'가 대표적이다. 서태지 아카이브는 서태지 팬클럽이 가수 서태지와 관련된 공개 자료를 디지털 형태로 수집·보존하여 서비스하고 있다(<http://www.seotaiji-archive.com/>). 가수와 팬클럽 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기록을 대상으로 하며, 공식자료, 매체별 기록, 팬덤 기록의 3개 범주로 대구분된다. 우선 공식자료는 그의 이력, 발매음반, 발매되거나 상영된 영상, 정규 및 일반(출연) 공연, 프로모션, 광고, 서태지의 메시지, 관련 웹사이트 등을 포괄하며, 매체별 기록은 지상/위성 TV방송, 라디오, 신문, 잡지, 책, 기타 비정기간행물과 문서, 웹문서, 다른 주체가 생산한 디지털 데이터(전자책, 동영상, 이미지, 소리, 소프트웨어, 기타)를 포괄한다. 팬덤 기록은 팬들이 만든 웹사이트 기록자료, 기념사업회 기록자료, 다양한 팬덤 활동, 팬 소장품이나 제작품 및 판매품과 같은 각종 물품, 팬아트, 용어집 등을 포괄한다.

서태지 아카이브는 이들 3개 범주 및 하위 범주별로 서로 다른 정보를 기술하고 있다. 공통적으로 기술되는 요소는 '제목', 발매일이나 상영일,

방송일 등에 해당하는 '일자', 서태지의 활동 '시기', '구분(매체)'이며 서태지 외의 주체가 생산한 자원에 대해서는 각 매체에 맞게 다양한 출처정보가 기술된다. 이 외에도 각 범주 및 특정 하위 범주별로 별도의 기술요소를 작성하고 있었다.

2.3 특정 가치·사건 공동체 기록: 병역거부 아카이브, 퀴어락

특정 가치나 사건 경험을 공유하는 집단과 관련된 기록을 수집하고 보존·서비스하는 아카이브의 사례로는 '병역거부 아카이브'와 '한국 퀴어 아카이브(일명 '퀴어락')'를 살펴보았다. 병역거부 아카이브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온라인 기록을 보관하고 서비스하는 공간으로, 평화박물관 지원 하에 '전쟁없는 세상'과 '평화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다. 병역거부에 대한 기본 안내 자료와 함께 자료전 개최 기록, 사회운동기록, 거부자 개인기록, 법원판결문, 관련 법안발의문, 관련기관 문서, 사진, 멀티미디어 및 출판물 등 병역거부자 및 거부자 집단과 관련된 풍부한 기록정보자원을 축적하고 있다(병역거부 아카이브 홈페이지). 다만 개별 건 단위로 전문(全文)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며 별도 기술이나 자료 간 연계, 집합적 기술이 이루어지지 않아, 전체적인 병역거부 운동의 움직임이나 맥락을 확인하기 어렵고 정보가 파편적으로 전달되는 아쉬움이 있었다.

이러한 면에서 한국 퀴어 아카이브 '퀴어락'은 조금 더 체계적으로 기록을 기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퀴어락은 한국성적소수자 문화인권센터에서 한국의 성적소수자의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기록을 수집하고 정리·보존하

여 온·오프라인에서 공유하고 검색·열람할 수 있도록 구축한 아카이브로, 아름다운재단의 기금사업으로 진행되었으며, 일반인의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곳이다(<http://www.queerarchive.org/>). 이곳에서는 성적소수자 집단 관련 기록을 서지류(논문, 단행본, 연속간행물, 문서), 영상류, 박물관(엑세서리, 홍보인쇄물, 포스터, 형질류, 개인기록물, 기타), 사진류 등 4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 세분된 기술정보를 기입하고 있었다. 병역거부 아카이브보다 기술 정보를 상세히 기입하고 있었으나, 이 역시 서지기술요소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기록관리 측면에서의 기술이나 집단 활동의 재현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정보는 부족한 편이었다.

2.4 특정 주제 기록: 목천건축아카이브, 민주자료관

특정 주제 분야의 기록정보자원을 수집하고 보존·서비스하는 아카이브로는 '목천건축아카이브'와 '민주자료관(성공회대)'을 살펴보았다. 목천건축아카이브는 20세기 한국 건축기록물의 수집과 보존을 목적으로 건축작품활동과 관련된 기록을 수집해 보존하고 활용하도록 구축되었으며, 목천김정식문화재단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다(<http://www.mokchonarch.com/USERS/ARC/INTRO/archive.asp>). 2010년 '김정식아카이브'로 시작한 후 건축가 컬렉션 기록을 지속적으로 수집·생산하고 있는데(목천건축아카이브 홈페이지), 현재 '김정식', '김정수', '안영배', '엄덕문', '최문규', '4·3그룹', '정인국', '김증업', '윤승중', '장석웅' 컬렉션을 관리하고 있다. 각 컬렉션은 건축가 기

록과 건축물 기록으로 크게 구분된다. 각 건축물에 대해서는 간략한 건축가의 이력과 함께 '건축가'명, '건축물명', '계획년도', '준공년도', '용도'의 5개 기본정보와 '위치', '규모', '구조', '대지면적', '건축면적'의 5개 건축물정보를 보여주며, 건축물 사진과 각종 도면에 대해서는 크기나 필립밀리, 스케일 등 자원의 특성을 반영한 일부 기술요소를 기입하고 있었다. 개인기록의 경우 건축 활동 이전과 이후로 세분하여 수첩이나 메모장, 증명서류, 사진류, 영상류, 그 외 서류별로 간단하게 식별할 수 있는 정도의 기술정보를 기입하고 있었다.

민주자료관은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에 관심이 있는 여러 분야 연구자들의 주도로 설립된 국내 민주화 운동 분야 아카이브로, 노동 기록, 사회운동 기록, 진보정당 기록 등 18여 만 건의 기록을 소장하고 있으며, 성공회대학교의 운영지원금과 부정기적 연구 프로젝트비로 운영 중이다. 민주자료관은 대학 내에 위치하고 있으나 대학 기록이 이관되는 대학기록관의 성격이 아니라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 기록을 포괄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하는 수집 기록관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http://www.demos-archives.or.kr/introduction/greeting.php>). 기록의 계층은 기록물관리군, 기록물군, 기록물계열, 철, 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노동·정치운동, 사회운동, 아시아, 구술아카이브즈 등 4개 기록물관리군 하에 출처별 기록물군을 생성하고 있으나, 주로 상자, 철, 권 단위에서의 기술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상위계층에 대한 집합적 기술은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영기 2012. 42-44).

이상 특정 기록 유형이나 개인·가치·사건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 주제별로 기록을 수

집하고 보존·서비스하는 국내 민간 아카이브 사례와 함께 그 기술 현황을 살펴보았다. 민주자료관을 제외한 아카이브는 모두 건 중심으로 기술 정보를 입력하고 있었고, 계층 기술을 원칙적으로 표방하는 민주자료관 역시 철과 건 단위 기술에 그치고 있었다. 목천건축아카이브는 건축가와 건축물로 범주를 나누고 그 하위 범주를 세분하는 등 계층 분류를 하고 있지만, 기술 정보에서 각 건 사이의 관계나 건과 상위 계층과의 관계를 찾아보기 힘들다. 이렇게 대부분의 민간 아카이브가 기본적으로 건 단위로 수집하고 기술하며, 일부 집합이나 계층 개념을 도입하더라도 건 목록을 모으는 수준에서 집합을 형성하고 있어 기록을 낱알의 정보자원으로 취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기록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다 하더라도 개별 건 정보의 주제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어, 기록과 기술정보를 통해 활동을 재구성하고 재현할 수 있는 증거로서의 가치는 배제되고 있었다. 이로 인해 건 수준에서의 접근이 아닌 특정 활동을 중심으로 기록을 찾고자 하는 요구에 대해서는 쉽게 대응하기 힘든 상태로 여겨졌다.

기록정보자원의 기술에 활용하고 있는 기술 정보 역시 모두 상이했다. 일정 시기에 기록관리 전공자가 기술 작업을 진행했던 민주자료관(이영기 2012, 40)을 제외하면 모두 서지기술 방식을 준용하거나, 개별 건과 매체, 자료 유형 정보를 담아낼 수 있는 기술요소만을 활용하고 있었다. 개별 아카이브가 사용하고 있는 기술요소 체계도 자원의 유형이나 매체별로 상이했는데, 예를 들어 가장 세구분된 기술요소 체계를 사용하고 있었던 서태지 아카이브의 경우 의미상 생산일자에 해당하는 일자를 ‘발매일자’나

‘공연일’, ‘발행일’ 등 기술 대상의 매체별로 구분하여 달리 명명하고 있어, 향후 기술정보를 통합 검색하거나 아카이브간 기술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상당량의 매핑 작업이 진행되어야 함을 예상할 수 있었다.

3. 아카이브 네트워크 사례 분석

이 장에서는 국외 지역 및 주제 기반의 아카이브 네트워크 사례를 분석하였다. 특히 기술정보 공유의 방식을 살펴보기 위해 기관 목록 연계형 아카이브 네트워크와 통합 목록 구축형 아카이브 네트워크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3.1 기관 목록 연계형 네트워크

각 참여 아카이브가 소장 기록정보자원에 대해 기술한 목록을 연계하여 공유하는 방식을 기관 목록 연계형 아카이브 네트워크로 구분하였으며, 그 사례로 MemoryBC와 Cambridgeshire Community Archive Network를 살펴보았다.

MemoryBC는 캐나다 British Columbia 지역의 200여 개 리포지토리가 보존하는 다양한 유형의 기록정보를 대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아카이브 게이트웨이이자 포털이다. British Columbia 아카이브 협회(Archives Association of British Columbia, AABC)가 운영하고 있으며, 2009년 기존의 BCAUL 데이터베이스를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인 ICA-AtoM으로 마이그레이션하면서 ‘MemoryBC.ca’ 사이트로 재탄생하였다(MemoryBC homepage). MemoryBC는 폰/컬렉션 기술, 즉 집합적 기술을 적용하고

있으며, 기술요소는 캐나다 기록물 기술 표준인 RAD(rules for archival description)의 기술요소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Cambridgeshire Community Archive Network(CCAN)는 Cambridgeshire 지역 내 그룹(공동체)의 기록 컬렉션을 웹상에 업로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된 아카이브 네트워크이자 개별 공동체 아카이브에 대한 아카이브 공간이다. 손실되기 쉬운 지역 문화유산이자 공동체의 유산으로서 공동체 생활에 대한 문서, 사진, 기억 등을 모으고 보존하기 위해 Heritage Lottery Fund(HLF)의 지원으로 2006년부터 CCAN 프로젝트를 진행한 결과물로, 50여 개의 공동체 기록 컬렉션을 생산한 바 있다(Cambridgeshire County Council 2012). 2013년부터는 CommunitySites 사가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로 구축된 웹공간을 이용해 각 공동체가 자발적으로 기록을 업로드하고 서비스 중이다(<http://www.ccan.co.uk/>).

CCAN에서는 각 기록에 대해 제목과, CCAN 내 분류, 포괄일자, 기증자, 기타 참조번호, 키워드 등을 보여주고 있다. CommunitySites가 ISAD(G)와 DC, 공동체 아카이브 목록 가이드라인 등을 기반으로 기술할 수 있는 기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http://www.communitysites.co.uk/category/cataloguing>), CCAN 역시 이러한 기술 표준을 준용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3.2 통합 목록 구축형 네트워크

중앙의 목록 구축 기관이 각 참여 아카이브가 구축한 기술 목록을 가져와 단일 목록을 구축하

고 이를 통해 다시 기관별 소장 기록정보자원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공유하는 방식을 통합 목록 구축형 아카이브 네트워크로 구분하였으며, 그 사례로 Scottish Archive Network와 Social History Portal을 살펴보았다.

1999년 설립된 Scottish Archive Network(SCAN)는 52개 스코틀랜드 아카이브가 소장 중인 2만 여개의 기록자료 컬렉션을 단일 목록으로 구축하여 각 기관 소장 기록자료로의 접근을 도와주기 위한 게이트웨이이다. 목록 구축과 함께 역사적 가치를 지닌 기록을 디지털화하고 보존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는데, 2004년부터 Heritage Lottery Fund(HLF)와 Genealogical Society of Utah(GSU), National Archives of Scotland(NAS)가 재정지원을 하고 있고, 이후 웹사이트, 목록, 디지털 이미지 프로젝트를 National Archives of Scotland가 관리하고 있다. SCAN의 온라인 목록을 통한 접근은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다. 첫 번째는 기록자료 소장 아카이브 브라우저를 통한 접근이며, 두 번째는 키워드나 문구(phrase)를 입력하여 접근하는 방식인데 이 경우 아카이브(기관)코드로 검색을 제한할 수 있다. SCAN은 국제 기록물 기술 표준인 ISAD(G)의 요소를 사용하여 컬렉션의 최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목록을 작성하고 있으며 26개 요소 중 참조코드, 표제, 일자, 기술 계층, 기술 단위의 규모와 매체, 생산자명, 생산연혁, 범위와 내용, 접근 조건, 자료의 언어와 문자, 검색도구, 관련 기술단위, 아키비스트 주기, 규칙/협약, 기술일자 등 15개 요소를 활용하고 있다(Scottish Archive Network 2000).

2013년 구축 완료된 Social History Portal(SHP)은 유럽연합의 재정지원 하에 2010년 5월

부터 진행된 HOPE(Heritage of the People's Europe) 프로젝트의 결과물 중 하나이다. HOPE 프로젝트를 통해 18세기 후반부터 현재 21세기까지의 사회사와 노동운동의 역사에 대한 90만 건 이상의 중요 디지털 컬렉션이 구축되었다. 현재 10여개 유럽 국가의 15개 도서관과 아카이브가 자관의 기록정보자원을 공유하고 있고, 앞으로 공유 기관이 더 추가될 예정이다. Europeana 포털과도 공유되고 있는 HOPE 데이터베이스에는 프랑스 혁명에서부터 이후 노동운동, 세계 대전, 유럽 통합 등에 이르는 200여 년에 달하는 유럽의 사회사에 대한 문서가 담겨 있다(http://www.peoplesheritage.eu/content/about_hope.htm).

Social History Portal은 현재 네덜란드 기점의 국제적 사회사 연구센터인 IISH(International Institute of Social History)와 국제 노동사기 관협회인 IALHI(International Association of Labour History Institutions)가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각종 기록은 물론 도서, 브로슈어, 리플릿, 사진, 포스터, 인쇄물, 만화, 소리, 영화, 비디오 등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 객체를 서비스하고 각 컬렉션 소장 기관으로 안내함은 물론 축적된 기록정보를 바탕으로 전시도 진행하고 있다(Social History Portal homepage). SHP에서의 기본 기술 단위는 컬렉션이다. Dublin Core Collection Description Profile을 기반으로 컬렉션을 기술하며, 이를 통해 광범위한 사회사 기록에 대해 통일적인 접근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컬렉션 기술은 중단위(mid-level) 기술이나 건(item) 기술로 연결되는데, 각 참여 기관은 디지털 객체를 SHP에 제출할 때 이들 객체에 해당하는 기술요소를 SHP 메타데이터 기준에

맞게 매핑해 작성하여 SHP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 이때 각 계층별로 입력해야 하는 필수 및 권고 메타데이터를 따라야 한다(Lemmens et al, 2011).

3.3 분석 종합

이상 살펴본 아카이브 네트워크는 <표 1>에 정리된 바와 같이 특정 지역이나 주제를 기반으로 기록정보자원을 소장하고 있는 아카이브의 기술 목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아카이브 게이트웨이이자 포털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이들은 각 아카이브가 소장 기록정보를 대상으로 구축한 기술 목록을 서로 연계하는 방식이나 각 아카이브가 구축한 기술 목록과 별도의 단일 목록을 구축하여 정보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기록정보자원에 대한 기술정보를 공유하고 있었다.

기관 목록 연계형 아카이브 네트워크의 경우는 참여 아카이브가 각자 구축한 기술 목록 정보를 네트워크용 플랫폼에 그대로 업로드하거나 별도로 마련된 아카이브별 영역에서 객체에 대한 정보를 기술하고 단일 인터페이스를 통해 이 기술정보를 통합 서비스한다. MemoryBC는 ICA에서 개발한 ICA-AtoM를 도입하여 참여 아카이브가 자관에서 구축한 기술정보와 디지털 객체 정보를 METS로 업로드 하도록 하고 있고(Archives Association of British Columbia 2013), CCAN은 CommunitySites의 플랫폼 내에서 각 공동체가 기록정보자원과 그에 대한 기술정보를 입력하도록 한다. 이처럼 이 두 사례에서 서로 다른 아카이브나 공동체가 각자의 기술정보를 공유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국제 및 국가 기술 표준을 지원하는 동일한 기술 플랫폼을 활

<표 1> 해외 아카이브 네트워크 분석 종합

구분	명칭	운영 주체	개요	대상	기술 단위	기술요소 (기준)	비고
기관 목록 연계	MemoryBC	AABC (협회)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200여 개 리포지토리가 보존하는 기록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카이브 게이트웨이	개인 및 조직이 생산한 기록, 개인문서, 사진 및 다양한 역사 정보	집합	RAD (기관별 세부 요소 상이)	기록 보기 : (1) 품/컬렉션 단위 기술, (2) 이름, (3) 리포지토리, (4) 주제, (5) 장소
	Cambridge-shire Community Archives Network	CCAN (자체)	캠브리지셔 지역의 32개 그룹의 기록을 보존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아카이브 네트워크	지역 및 공동체와 관련된 건물, 사건, 인물 및 다양한 주제를 담은 문서, 사진, 멀티미디어 자료 등	건	ISAD(G), DC, CAHG	각 공동체별 개별 컬렉션 구성
단일 목록 구축	Scottish Archive Network	NAS (정부)	스코틀랜드 지역 아카이브 소장 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카이브 게이트웨이	역사적 보존 가치가 있는 다양한 유형의 기록(디지털화 기록 포함)	최상위 계층	ISAD(G) 중 15개	기록 보기 : (1) 기관별 (2) 키워드
	Social History Portal	IISH/ IALHI (협회/ 연구센터)	18세기 후반부터 21세기 초까지의 사회사 및 노동사 기록 정보 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포털	유럽 10여 개국 15개 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기록, 도서, 인쇄물, 멀티미디어 객체(디지털화 기록 포함)	컬렉션 /집합	DC	브라우저 : (1) 기관, (2) 주제, (3) 언어 검색 : (1) 유형, (2) 주제, (3) 기관, (4) 컬렉션명, (5) 기술계층, (6) 언어

용했기 때문이다. 또한 MemoryBC의 사례에서와 같이 참여 기관들이 공통적으로 표준 기술규칙인 RAD를 기반으로 기록정보자원을 기술하고 있었다는 점도 각 기관의 기술목록을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연계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통합 목록 구축형 아카이브 네트워크는 이에 참여하는 아카이브 목록의 기술정보 중 일부 정보를 아카이브 네트워크가 가져와 단일 목록을 별도로 구축하여 기술 정보를 공유한다. Scottish Archive Network는 ISAD(G)의 26개 요소 중 15개 요소를 채택하였으며, 각 참여 기관의 소장 기록정보자원에 대한 최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기술정보를 대상으로 단일 목록으로 구축하

였다. Social History Portal은 DCCAP(Dublin Core Collection Application Profile)를 활용한 Dublin Core Collection Description Profile에 부합하도록 각 기관의 기술정보를 컬렉션 단위로 가져와 별도의 통합 기술목록을 구축한다. 이들 두 사례 아카이브 네트워크는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별도의 메타데이터 스키마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아카이브 네트워크용 기술정보를 축적해 목록을 구축하고 있다. SCAN의 경우 전체 참여기관이 아카이브인 만큼 통합 목록 작성에 사용할 요소 역시 기록물 기술 표준인 ISAD(G)를 기반으로 정의하고 있었으며 SHP는 도서관과 아카이브가 참여하고 있고 간행물까지 포괄해야 하므로 DC 기반으로 스키마를 정의하되

자원 유형별로 요소를 구분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각 아카이브 네트워크 사례기관에서 기술정보 공유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요소를 정리해보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MemoryBC는 각 참여 아카이브가 RAD 2008년 개정판(Bureau of Canadian Archivists 2008)을 기술 표준으로

활용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요소를 작성하였으며, CCAN은 검색도구 상에 드러난 요소를, SCAN과 SHP는 각각, ISAD(G)2와 DCCAP를 기반으로 자체 개발한, SCAN 메타데이터 모델(Scottish Archive Network 2000)과 SHP용 HOPE 메타데이터 모델(Lemmens et al. 2011)을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표 2> 분석 대상 아카이브 네트워크에 적용된 기술요소

구분	MemoryBC*	CCAN	SCAN	SHP**
적용 표준	RAD	ISAD(G), DC, CAHG	SCAN 모델	DCCDP
기술단위	클래스(cs), 철(f), 건(i)	건	최상위계층	컬렉션(c), 중계층(m), 건(i)
식별 및 표제	번호	9.1 표준번호(i)	6. 다른 참조번호 (디지털객체번호) (7. 참조번호)	1. 식별코드 19. (m) ^{av} 식별코드 43. (i)로컬ID, 청구번호/참조번호 44. (i)디지털자원PID, 일련번호
	제목	1.1 표제 1.3 대등표제 1.4 기타 표제정보	제목	2. 제목 1. (c)컬렉션제목/(m) ^{av} (i)제목 37. (m) ^{av} (i)기타표제
	유형	1.2 일반자료유형[GMD]		5. (c)(m) ^{av} (i)건 유형(c/i) 36. (m) ^{av} 자료유형/포맷
	계층	기술계층		4. 기술계층 10. (m) ^{av} 기술계층
일자	4.1 생산일자 4.5 출판·배포일자(i) 4.8 제작일자	4. 포괄일자	3. 일자(축적/생산)	13. (c)(i)시간 포괄범위 21. (m) ^{av} (i)일자 14. (c)일자(비표준 방식)
기록정보자원 유형 및 물리적 기술	3. 특수유형자료 상세사항(f/i) 5.1 기술단위의 규모 5.2 기타 물리적 사항 5.3 크기/치수 5.4 첨부자료사항		5. 기술단위의 규모와 매체	11. (c)(i)크기/규모(c), 재생시간, 길이 22. (m) ^{av} 기술단위의 규모 12. (c)건 포맷 41. (i)형식, 장르, 객체유형, 포맷 42. (i)외형, 매체, 물리적 기술 14. (c)비표준 방식의 물리적 기술
생산 및 관리 연혁	책임	1.5 책임사항 4.2 출판·배포지 4.3 출판·배포사 4.4 출판·배포사의 기능 4.6 제작장소 4.7 제작자명	5. 기여자	6. 생산자 20. (m) ^{av} (i)생산자(m) 30. (m) ^{av} (i)저자, 감독, 편집자, 기여자 31. (m) ^{av} (i)출판사, 출판지 32. (m) ^{av} (i)제작사, 제작지 40. (i)출처
	이력	7.1 행정연혁/개인이력(cs) 7.2 관리이력(cs)		7. 행정연혁/개인이력 17. (c)관리이력 23. (m) ^{av} 행정연혁/개인이력 24. (m) ^{av} (i)기록관리이력 35. (m) ^{av} (i)발행)빈도 6. (c)(i)데이터제공자 7. (c)데이터제공자 국가

구분	MemoryBC*	CCAN	SCAN	SHP**
내용	7.3 범위와 내용	2. 범주 3. 주제어	8. 범위와 내용	2. (C <i>i</i>)기술(c) 8. (C)HOPE 주제 9. (c)주제 10. (C <i>i</i>)지역 범위 27. (m) ^p 정리체계 29. (m) ^p (통제된)접근점 34. (m) ^{jav} (i)초록/시놉시스 38. (m) ^{jav} (i)주제영역(연상/묘사)
주기	8. 주기			26. (m)a(i)내용(범위) 주기
접근 및 이용	권한		9. 이용조건	15. (C <i>i</i>)이용권한(c)/저작권 16. (C <i>i</i>)접근권한(c) 28. (m) ^p (m) ^{jav} 접근/이용조건
	언어		10. 자료 언어/문자	4. (C <i>i</i>)언어 25. (m) ^p (m) ^{jav} 기술대상자료의 언어
	검색	접근점-인명/지명/기업	11. 검색도구	18. (C <i>i</i>)검색도구
기술통제			13. 아키비스트 주기 14. 규칙/규약 15. 기술일자	3. (C)생성일자
연관 자원	6.X 시리즈표제/책임사항 /ISSN/시리즈번호		12. 관련 기술단위	
기타	판	2.X 판·관련 책임사항 등		33. (m) ^{jav} 판사항
	객체			39. (i)썸네일

* 기술 대상을 처음 기술할 때의 필수 요소(제1계층 필수요소)는 밑줄 표시하였으며, 일부 계층에만 해당하는 경우는 요소 오른쪽에 괄호 안에 표기하였음.

** 각각 (C): 컬렉션, (m): 중계층(m)^p: 기록물, (m)^{jav}: 도서/멀티미디어자료, (i): 건에 해당하는 요소임을 요소명 앞에 부기하였음. 필수요소는 밑줄 표시하였으며, 일부 계층에만 해당하는 경우는 요소 오른쪽 괄호 안에 표기하였음.

MemoryBC는 RAD를 지원하는 ICA-AtoM을 기술 및 검색 플랫폼으로 활용한다. 각 기관이 RAD로 기술한 정보가 이를 통해 공유되며, 다계층 기술을 지원하되 각 참여 기관이 설정한 기술의 단위를 수용하고 있었다.

CCAN과 SCAN은 ISAD(G)나 DC와 같은 국제 표준의 요소를 일부 적용하여 기록정보자원을 공유하고 있었다. CCAN은 지역의 소규모 공동체 기록을 건 단위로 기술하고 있었는데 비전문가 집단의 참여로 운영되는 만큼 복잡하고 상세한 기술요소를 적용했을 때 접근성

이나 참여 정도가 낮아질 것을 고려한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향후 기술 플랫폼이 변화더라도 쉽게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 표준의 요소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SCAN은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각 아카이브가 구축한 전체 기술목록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이용자들이 한 곳에서 각 참여 아카이브가 소장하는 기록정보자원 컬렉션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종의 가이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구축되었다(Scottish Archive Network 2000). 이 때문에 ISAD(G) 기술요소

중에서도 컬렉션 안내에 필요한 요소만을 별도로 정의하여 최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정보만 축적하고 이에 한해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SHP의 경우는 유럽연합의 HOPE 프로젝트에서 개발된 사회사 기록 포털용 기술요소 스키마를 활용하고 있다. 주요 참여 기관이 유럽 내 사회사 연구에 필요한 정보자원을 소장하고 있는 기관이므로, 기록은 물론 도서와 기타 멀티미디어 자원까지 포괄하는 DC 기반의 컬렉션 AP(application profile)를 활용해 스키마를 구축하고 있었다. 이런 이유로 SHP에서 설정한 컬렉션 단위는 기록물 컬렉션이나 품 계층보다 상위에 존재하는 관리 및 검색을 위한 집합체 개념으로 적용되고 있었으며, 실제 기록물 컬렉션과 품, 시리즈 등에는 중계층 기술요소를, 건 단위에 대해서는 건 기술요소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었다.

4. 공유 및 통합 이용을 위한 방향

이 장에서는 향후 국가 차원의 소규모 민간·공동체 아카이브 네트워크(private & community archive network in Korea: PCAN) 구축을 목표로 하여 고려할 사항과 그 방향을 기록정보자원에 대한 기술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4.1 민간 아카이브 디렉토리 구축과 협의체 구성

우리나라의 소규모 민간 아카이브가 소장하고 있는 기록정보자원의 공유를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작업은 민간 아카이브에 대한 소재

확인이다(설문원 2013). 이 과정을 통해 향후 공유 네트워크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기관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들 기관의 참여 방식이나 기관을 대상으로 한 지원 방식의 모색과 협력도출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영국의 Community Archives & Heritage Group(CAHG)의 사례를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CAHG는 영국과 아일랜드 내 공동체 아카이브 구축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집단으로, 이 지역 기록협회(archives & records association in uk & ireland)의 특수 이익단체이다. 공동체 아카이브와 관련된 기구와 조직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포럼과 컨퍼런스, 연례회의 등을 개최하여 참여 기관들의 견해와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며, 공동체 아카이브가 활용할 수 있는 목록 지침 등을 개발하고 아카이브 구축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하는 등 공동체 아카이브 구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CAGH 2011).

CAHG의 성과 중 하나는 공동체 아카이브 국가 디렉토리(national directory of community archives)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디렉토리를 통해 영국과 아일랜드 각지에 존재하는 공동체 아카이브를 소개하고 각 아카이브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소규모 민간 아카이브들이 네트워킹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 디렉토리는 일회성으로 구축된 완성품이 아니라 현재도 지속적으로 이곳에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공동체 아카이브가 자관의 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마련하고 있다. 한편 이들의 협력과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가장 큰 방법이 재정지원인 만큼, 단순한 공동체 아카이브 정보 수집을 넘어서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한

CAHG의 다각적인 공동체 아카이브 지원이 다시 디렉토리 구축과 지속적인 정보 축적, 나아가 협력체 구성으로까지 이어지는 힘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 아카이브 사업을 통해 생겨나는 민간 아카이브는 물론이고 자생적으로 온오프라인상에서 신설 및 운영되는 아카이브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들을 다각도로 지원하고 한데 모을 수 있는 기구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기록전문가협회나 국가기록원, 각 지방영구기록물관리기관 등 다양한 유관 기관이나 단체의 협조와 지원을 바탕으로 하되 여러 민간 아카이브가 주체가 되는 민간 및 공동체 아카이브 협의체가 구성된다면, 이들의 소재 확인, 정기·비정기적인 회합, 기관 간 다각적인 협력과 지원 등을 현실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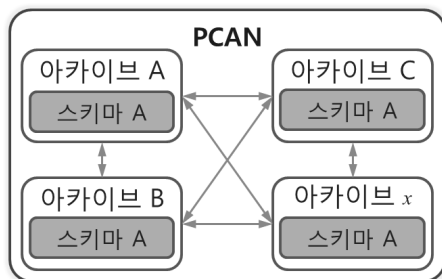
4.2 기술정보 공유 모형

실질적으로 소장 기록정보자원을 공유·통합 이용하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 중 하나는 각 아카이브의 기술정보 목록을 공유하는 단계이다. 가장 강력한 기록정보 공유는 참여 기관 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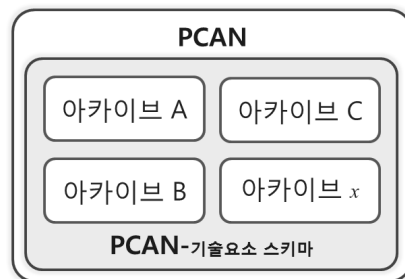
두가 동일한 기술 표준을 적용하는 것이겠으나, 각 아카이브가 소장하고 있는 기록정보자원의 유형이 다양하고, 각 기관은 객체별 특성과 기록으로서의 그 재현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기술요소를 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가 차원의 공유를 위해서는 서로 다른 방식들을 상이한 규모의 아카이브 네트워크에 적용 실험해보는 단계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민간 및 공동체 아카이브 협의체의 구성을 전제로 기술정보 공유 모형을 다음의 세 가지로 제안하였다.

4.2.1 단일 표준의 기술요소 스키마 적용

가장 단순하고 강력한 기록정보 공유 방식은 각 민간 아카이브의 동의와 협력 하에 하나의 기술요소 스키마를 선정하는 것이다. 참여 아카이브는 이에 준하여 자관의 스키마를 정의하고 기록정보자원을 각자 기술한 후 <그림 1>과 같이 PCAN 내에서 직접 교환할 수 있다. 또한 CCAN의 사례에서와 같이 PCAN 플랫폼 내에 마련된 PCAN 기술요소 스키마 정의에 따라 기록정보자원을 각자 기술할 수도 있다(<그림 2> 참조). 이처럼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아카이브가 단일 표준의 기술요소 스키마를 적용하면 상호



<그림 1> 단일 스키마형 PCAN I



<그림 2> 단일 스키마형 PCAN II

간 추가적인 기술요소 매핑 단계를 거치지 않아도 기록정보 목록을 쉽게 공유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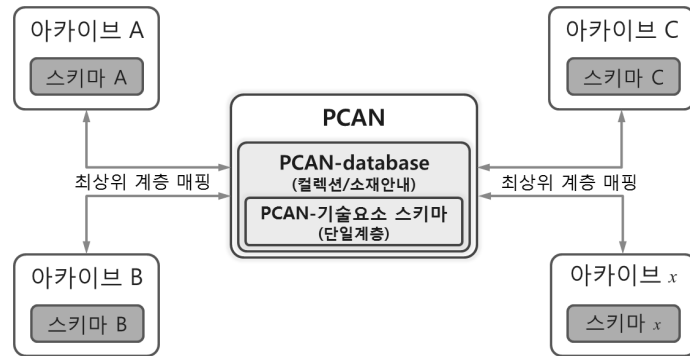
앞서 우리나라 민간 아카이브의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 아카이브가 수집하는 기록정보자원으로 국한한다고 하더라도 문서형 기록은 물론이고 사진이나 멀티미디어, 박물관과 같은 유형의 객체, 일부 도서와 같은 간행물이 컬렉션에 포함되기도 한다. 일부 연구에 의하면 무형의 객체까지 아카이브의 관리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한다면, 다양한 개인이나 집단, 조직, 주제를 포괄해야 하는 민간 및 공동체 아카이브 네트워크(PCAN) 내에서 모든 기관이 동일한 기술요소 스키마를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하다.

다만, 네트워크 내 그룹 중 유사한 유형의 기록정보자원을 소장하며 유사한 기술 관행을 지니고 있는 그룹이 서브 네트워크 단위를 구성하는 경우에 이 모형을 활용해볼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일례로, CAHG는 2009년 Cataloguing Guidelines for Community Archive(CAHG 2009)를 발간하여 공동체 아카이브가 소규모로 컬렉션을 조직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지침을 주고 있다. 컬렉션 단위, 그 이하에 다수의 건이 모인 건 집합 단위, 건 단위로 구분하여 기술해 주어야 하는 요소를 정의하고, 별도의 기술요소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지 않는 한 이 지침에서 제안하는 기술요소를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나아가 이 목록지침은 ISAD(G)와 Dublin Core를 바탕으로 기술요소를 정의하고 있어 타 기록물관리기관과의 기록정보 목록 공유가 용이하며, 향후 다른 기술요소 스키마를 활용하게 될 경우에도 쉽게 매핑할 수 있도록 상호운용성까지 고려하였다.

4.2.2 기술정보 리포지토리형 통합 기술요소 스키마 구축

두 번째로는 기술정보 리포지토리형(descriptive information repository) PCAN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의 민간·공동체 아카이브 네트워크가 별도의 통합 기술요소 스키마를 정의하고 참여 아카이브의 기술정보 목록 중 일부만을 매핑하여 통합하는 방식이다. Scottish Archives Network의 사례에서와 같이 PCAN은 통합 스키마를 활용해 참여 아카이브로부터 상위 계층의 기술정보만을 수집하여 축적하고, 이후 PCAN에서 이를 대상으로 검색한 이용자를 다시 각 참여 아카이브로 안내한다(〈그림 3〉 참조). 이때 PCAN은 각 참여 아카이브가 구축한 기술목록 정보의 일부만 매핑해 저장하는 기술정보 리포지토리의 역할 및 기록정보자원의 소장 기관으로 안내하는 민간·공동체 아카이브 컬렉션 가이드의 역할을 수행한다.

기술정보 리포지토리형 PCAN은 컬렉션 등 최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각 참여 아카이브가 구축한 일부 기술정보만을 매핑하므로, 비교적 단기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초기 구축이 가능할 것이다. 또 초기 구축이 완료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참여 아카이브의 기술정보 목록과의 매핑 역시 디지털 아카이브형 PCAN보다 용이할 것으로 여겨진다. 나아가 상위 집합체 단위의 기술정보 목록만 통합 구축함으로써 상이한 유형의 기록 집합체에 대한 기술정보 역시 비교적 표준적으로 축적할 수 있을 것이다. 이용자 역시 일종의 게이트웨이인 PCAN을 활용해 통합 검색하면서도 각 아카이브가 구축한 풍부한 기술정보까지 연결해 접근할 수 있게 되는 이점이 있다. 따라서 PCAN을



〈그림 3〉 통합 스키마형 PCAN(DIR형)

구축하는 초기 단계에 이 모형을 적용해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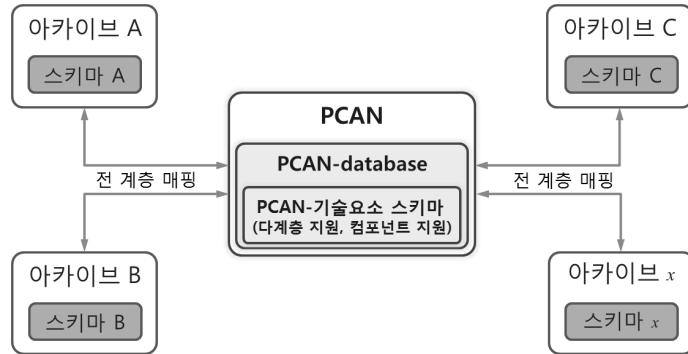
4.2.3 디지털 아카이브형 통합 기술요소 스키마 구축

디지털 아카이브형(digital archive) PCAN을 지원하기 위해 참여 아카이브가 소장물 기술에 적용한 기술요소 스키마와는 별도로 민간·공동체 아카이브 네트워크(PCAN)용 기술요소 스키마를 작성하고 이를 각 참여 아카이브의 기술정보 목록과 완전하게 매핑하여 통합하는 방안이다. 앞서 살펴본 Social History Portal의 경우와 같이 각 참여 아카이브가 작성한 기술정보의 계층 구조는 물론 디지털 객체까지 포괄하여 향후 포털이자 통합 디지털 아카이브의 역할까지 지원할 수 있는 기술요소 스키마를 작성해 각 참여 아카이브의 기술정보 목록을 통합·축적한다(〈그림 4〉 참조).

이 경우, PCAN은 각 참여 아카이브에서의 기술정보를 고려해 PCAN 기술요소 스키마를 별도로 개발하며 각 참여 아카이브로부터 기술정보 목록과 일부 디지털 객체까지 수집하고 PCAN 스키마에 매핑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

야 하는 등, 참여 기관의 신뢰와 연계를 바탕으로 네트워크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재정적·인적 지원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최초 디지털 아카이브형 PCAN을 구축하는 초기 단계에서는 일정 정도의 범국가적 프로젝트를 구성할 필요도 있을 것이며, 여기에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 등 재정적·인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충분히 투입할 수 있는 국가기관이 일정 정도 참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PCAN의 지속적인 운영은 민간 및 공동체 아카이브 협력체가 주체로서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모형의 민간·공동체 아카이브 네트워크가 실현될 수 있다면, 향후 별도로 아카이브를 운영하기 힘든 기관이나 조직의 경우도 이 디지털 아카이브형 통합 네트워크 내에서 안정적으로 자신들의 기록정보자원을 관리하고 보존·서비스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반면, 통합 기술요소 스키마를 적용하기 때문에, 극도로 다양한 유형의 기록정보자원을 소장하고 있고 충분히 이를 재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닌 민간 아카이브의 경우에는 PCAN에의 참여 동기가 감소되는 단점이 있을



〈그림 4〉 통합 스키마형 PCAN(DA형)

수 있다. 따라서 민간 및 공동체 아카이브 협력 체를 구성하고 PCAN을 구상하는 초기 단계보다는 일정 정도 협력의 수준이 공고해지고 아카이브 간 기술정보 공유로부터 얻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후 점진적으로 디지털 아카이브형 PCAN 모형을 적용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국내 소규모 민간 아카이브가 소장하고 있는 컬렉션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통합 이용하기 위한 방향을 기술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민간 및 공동체 아카이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기술정보 공유와 통합 이용을 염두에 두고 국내 공동체기록 수집형 민간 아카이브로 한정하여 기술 현황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 아카이브는 건 단위에서 기술하고 있었다. 건 단위 기록의 매체 특성이나 주제를 드러낼 수 있는 요소를 주로 기술하고 있었고, 개인이나 민간 조직 및 집단의 활동을 증거하고 재현할 수 있도록 집합적으로 기술하거나 객체 간 관계를 살

펴볼 수 있는 방식으로 기술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나아가 국외의 아카이브 네트워크들이 참여 기관의 기술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방식을 유형화하고 분석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에서 민간·공동체 아카이브 네트워크(PCAN)를 구축하기 위한 시사점을 기술의 측면에서 도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마지막으로 PCAN의 구축에 기반이 될 민간 및 공동체 아카이브 협의체를 구성할 것과 PCAN 구축에 필수적인 기술정보의 공유 방향을 세 가지로 제안하였다.

최근 민간 아카이브나 공동체 아카이브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우리나라의 다양한 현재상을 기록화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이들의 협력이 강조되고 있다. 그럼에도 공공 아카이브와 비교하면 아직 이 분야의 연구는 초기 단계이며, 더욱이 아카이브 상호간 협력과 기술정보 공유와 관련한 국내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런 이유로 본 연구는 미래 가상의 민간·공동체 아카이브 네트워크(PCAN) 구축을 위하여 그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정보 공유 방향을 제안하였다.

향후 PCAN을 현실성 있게 구축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가 제안한 공유 방향을 적용 실험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소규모로 준

재하는 민간 아카이브가 소장 기록정보를 쉽고 간단하게 공개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와 전략에 대한 연구도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민간 아카이브 및 아카이브 이용자의 요구에 대한 연구 역시 기술정보의 구축과 공유에 기여할 것이며, 각 아카이브 수준에서도 기록학적 관점에서 정리 계층을 설정하고 기술하기 위한 사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러 민간 및 공동체 아카이브를 모으고 이들이 자발적으로 기술정보를 공유하도록 유도하

기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재정 지원하며 지속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본 연구가 제안한 민간 및 공동체 아카이브 협의체를 주축으로 국가기관이나 기록전문가협회, 각종 기록관리 연구기관 등이 함께 지원 및 참여하여 이에 필요한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다양한 민간 아카이브가 자발적으로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다면 다양한 현재를 남길 수 있는 또 하나의 자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곽건홍. 2011. 일상 아카이브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소론. 『기록학연구』 29, 3-33.
- 김상호. 2001. 한국의 민간기업 기록보존시스템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5(1), 205-228.
- 김선미, 김익한. 2011. 만화기록 관리 방안 연구. 『기록학연구』 30, 35-81.
- 김선미. 2004. 가톨릭 교회 기록물 관리에 관한 연구: 인천교구 기록관을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4(1), 177-201.
- 김수정, 김용. 2013. 무형문화유산 기록물을 위한 FRBR 기반 메타데이터 요소에 관한 연구. 『한국정보관리학회지』 30(2), 119-141.
- 김익한. 2011. 교회 기록관리를 위한 제언. 『사목정보』 4(7), 7-9.
- 김주관. 2008. 민속자료와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민속연구』 17, 33-52.
- 김진성. 2011. 영화 기록의 기술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30, 89-123.
- 김화경. 2007. 기업사료의 수집·평가방안 연구: 메리츠화재의 사례를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15, 219-262.
- 목천건축아카이브 홈페이지. [cited 2013.10.17].
<<http://www.mokchonarch.com/USERS/ARC/INTRO/archive.asp>>.
- 박성수. 2010. 사찰기록 관리 체계화 방안 연구. 『기록학연구』 26, 33-62.
- 백지원. 2013. 시각예술자원 통합검색 유형 분석 및 적용 방향성 정립. 『정보관리학회지』 30(3), 111-131.
- 병역거부 아카이브 홈페이지. [cited 2013.10.27]. <<http://peacearchive.net/x/about>>.
- 서태지 아카이브 홈페이지. [cited 2013.10.21]. <<http://www.seotaiji-archive.com/>>.

- 설문원. 2012. 공간 중심의 로컬리티 기록화 모형의 설계.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3(4), 437-455.
- 설문원. 2013. 2013년 10월 17일 부산에서 저자와의 면담.
- 성공회대학교 민주자료관 홈페이지. [cited 2013.12.13].
〈<http://www.demos-archives.or.kr/introduction/greeting.php>〉.
- 소리아카이브 홈페이지. [cited 2013.10.21]. 〈<http://soriarchive.net/>〉.
- 위주영. 2010. 무형문화유산 메타데이터 현황과 과제: 공예기술을 중심으로. 『인문콘텐츠』 17, 499-531.
- 윤택림, 최정은. 2012. 문화기술지적 자료의 연구기록 관리 방안 연구: “부여의 문화사” 연구프로젝트 자료의 분류 및 기술을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2(2), 71-91.
- 이영기. 2012. ‘마산·창원노동조합총연합회(1987년~1995년)’ 기록물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정보·기록관리학과 석사학위논문.
- 이영남. 2012. 공동체아카이브, 몇 가지 단상. 『기록학연구』 31, 3-42.
- 이은미, 김명, 임진희. 2012. 의무기록관리의 현황과 개선방안: KS X ISO 15489표준의 Y병원 적용을 중심으로. 『정보관리학회지』 29(3), 257-285.
- 이정연 외. 2011. 여성구술생애기록물 맥락 표현을 위한 메타데이터 구조화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30, 57-88.
- 임진희. 2013. 2013년 11월 2일 부산에서 저자와의 면담.
- 장윤미, 정연경. 2010. 건축도면 아카이브의 기술요소 비교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0(2), 53-74.
- 최재희. 2008. 국가차원의 문화유산기관 협력체 구성사례 및 시사점. 『한국기록관리학회지』 8(2), 61-74.
- 한국 퀴어 아카이브 홈페이지. [cited 2013.10.27]. 〈<http://www.queerarchive.org/>〉.
- 한국기록학회. 2008. 『기록학 용어 사전』, 서울: 역사비평사.
- 황진현, 임진희. 2012. 시각예술기록정보 관리를 위한 데이터모델 설계: KS X ISO 23081 다중 엔티티 모델의 적용을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33, 155-206.
- Archives Association of British Columbia., 2013. MemoryBC-digital Objects Policy. [cited 2013. 10.17]. 〈http://aabc.ca/media/18357/20120308_%20digObject_POL_v4-1.pdf〉.
- Bountouri, Lina, & Gergatsoulis, Manolis, 2011. “The Semantic Mapping of Archival Metadata to the CIDOC CRM Ontology.” *Journal of Archival Organization* 9(3-4), 174-207.
- Bureau of Canadian Archivists. 2008. *Rules for Archival Description*, Revised version, Ottawa: BCA.
- CAHG. 2009. Cataloguing Guidelines for Community Archive. [online]. [cited 2013.11.10]. 〈http://www.communityarchives.org.uk/documents/community_archives_cataloguing_guidelines_v1.pdf〉.
- CAHG. 2011. History and Purpose. [cited 2013.11.12]. 〈http://www.communityarchives.org.uk/page_id__1063_path__0p1p72p.aspx〉.

- Cambridgeshire County Council. 2012. Cambridgeshire Community Archive Network Project. [cited 2013.11.5].
〈<http://www.cambridgeshire.gov.uk/leisure/archives/catalogue/communityarchives.htm>〉.
- CCAN homepage. [cited 2013.10.28]. 〈<http://www.ccan.co.uk/>〉.
- Community Archive Access Project. 2004. Community Access to Archival Project: Final Report. [online]. [cited 2013.10.29].
〈<http://collections.europarchive.org/tna/20090609172106/http://www.nationalarchives.gov.uk/documents/finalreport.pdf>〉.
- CommunitySites Homepage. [cited 2013.11.5].
〈<http://www.communitysites.co.uk/category/cataloguing>〉.
- Elings, Mary W., & Waibel, Gunter. 2007. "Metadata for all: Descriptive Standards And Metadata Sharing Across Libraries, Archives and Museums." *First Monday* 12(3). [online]. [cited 2013.10.17]. 〈<http://firstmonday.org/article/view/1628/1543>〉.
- Flinn, Andrew, & Stevens, Mary. 2009. 'It is Noh Mistri, Wi Mekin Histri.' Telling Our Own Story: Independent & Community Archives in the UK, Challenging & Subverting the Mainstream. In *Community Archives: the Shaping of Memory*, 3-27.
- Hope Homepage. [cited 2013.11.8]. 〈http://www.peoplesheritage.eu/content/about_hope.htm〉.
- Lemmens, Bert et al. 2011. The Common HOPE Metadata Structure, Including the Harmonisation Specifications. [online]. [cited 2013.11.8].
〈http://www.socialhistoryportal.org/sites/default/files/D2_2_Metadata%20Structure.pdf〉.
- Lim, Shirley, & Liew, Chern Li. 2011. "Metadata Quality and Interoperability of GLAM Digital Images." *Aslib Proceedings: New Information Perspectives* 63(5), 484-498.
- MemoryBC Homepage. [cited 2013.10.17]. 〈<http://www.memorybc.ca>〉.
- Prom, Christopher J. 2002. "Does EAD Play Well with Other Metadata Standards? Searching and Retrieving EAD using the OAI protocols." *Journal of Archival Organization* 1(2), 51-72.
- Schaffner, Jennifer. 2009. The Metadata is the Interface: Better Description for Better Discovery of Archives And Special Collections, Synthesized from User Studies. [online]. [cited 2013.11.20].
〈<http://www.oclc.org/content/dam/research/publications/library/2009/2009-06.pdf?urlm=162923>〉.
- Scottish Archive Network Homepage. [cited 2013.10.27]. 〈<http://www.scan.org.uk/>〉.
- Scottish Archive Network. 2000. Guidelines for Collection Description: Online Catalogues Project. [cited 2013.11.5]. 〈<http://www.scan.org.uk/aboutus/SCANguidelines.pdf>〉.
- Social History Portal homepage. [cited 2013.11.8]. 〈<http://www.socialhistoryportal.org/>〉.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Baek, Ji-won. 2013. "A Study on Single Search Strategy for the visual arts resources and its applications: focusing on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0(3), 111-131.
- Chang, Yum-mee, & Chung, Yeon-kyoung. 2010. "A Comparative Study on the Description for Architectural Drawing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0(2), 53-74.
- Choi, Jae-hee. 2008. "A Case Study on the MLA as an Example for the National Level Cooperation Between Cultural Institution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8(2), 61-74.
- Demos Archives Homepage. [cited 2013.12.13].
<<http://www.demos-archives.or.kr/introduction/greeting.php>>.
- Hwang, Jin-hyun, & Yim, Jin-hee. 2012. "A Study on Multiple Entity Data Model Design for Visual-arts Archives and Information Management in the Case of the KS X ISO 23081 Multiple Entity Model."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33, 155-206.
- Kim, Hwa-Kyoung. 2007. "A Case Study of a Acquisition & Appraisal Policy of Business Archives: with a Focus on Meritz."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15, 219-262.
- Kim, Ik-han. 2011. "A Suggestion for the Management of Catholic Church's Records and Archives." *Pastoral Information* 4(7), 7-9.
- Kim, Jin-sung. 2011. "A Study on Description about Archival Materials in Film Archives."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30, 89-123.
- Kim, Ju-Kwan. 2008. "Folk Materials and Building a Digital Archive." *Minsokyeongu* 17, 33-52.
- Kim, Sang-ho. 2001. "A Study on the Business Archival System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5(1), 205-228.
- Kim, Seon-mi, & Kim, Ik-han. 2011. "A Study on the Management of Manhwa Contents Records and Archives."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30, 35-81.
- Kim, Soojung, & Kim Yong. 2013.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Metadata Elements fo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Records Based on FRBR."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0(2), 119-141.
- Kim, Sum-mi. 2004. "A Study on the Management of Catholic Church's Records and Archives: Focusing on the Incheon Diocese Archive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 Records Management* 4(1), 177-201.
- Korea Queer Archive Homepage. [cited 2013.10.27]. <<http://www.queerarchive.org/>>.
- Korean Society of Archival Studies. 2008. *Ditectory of Records and Archival Terminology*. Seoul: Yuksabipyungsa.
- Kwak, Kun-hong. 2011. "A Study on a Paradigm Shift to Archives of Everyday Life."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29, 3-33.
- Lee, Eun-mi, Kim, Myeong, & Yim, Jin-hee. 2012.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and Tasks of Medical Records Management: Focused on Applying the KS X ISO 15489 to the Y Hospital."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9(3), 257-285.
- Lee, Jung-yeon et al. 2011. "A Study on Metadata Structuralization for Context Representation of Women's Oral Life History."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30, 57-88.
- Lee, Young-ki. 2012. *A Study on the Methods Of Managing Manuscripts of the Federation of Labour Unions in Masan-Chanwon Region(1987~1995)*.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Department of Information & Records Management.
- Lee, Young-nam. 2012. "Some Possibilities of Community Archivs."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31, 3-42.
- Mokchon Architecture Archive Homepage. [cited 2013.10.17]. <<http://www.mokchonarch.com/USERS/ARC/INTRO/archive.asp>>.
- Park, Sung-Su. 2010.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Buddhist Temple Records Management System."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26, 33-62.
- Seo Tai Ji Archive Homepage. [cited 2013.10.21]. <<http://www.seotaiji-archive.com/>>.
- Seol, Moon-won. 2012. "Designing a Space-based Locality Documentation Model."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3(4), 437-455.
- Seol, Moon-won. 2013. 10. 17. Interview by Author. Busan.
- Sori Archives Homepage. [cited 2013.10.21]. <<http://soriarchive.net/>>.
- The Archive of Conscientious Objection in South Korea Homepage. [cited 2013.10.27]. <<http://peacearchive.net/xo/about>>.
- Wie, Ju-Young. 2010. "The Present State of the Metadata of Intangible Cultural Asset and Its Problem: Focused on the Craftwork." *Humanities Contents* 17, 499-531.
- Yim, Jin-hee. 2013. 11. 2. Interview by Author. Busan.
- Yoon, Taek-lim, & Choi, Jung-eum. 2012. "A Study on the Records Management of the Ethnographic Data: Focusing on Classification and Description of the Research Data of 'Cultural History of Kitchen' Project."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2(2), 71-91.